

이야기 7 : 오병이어

주제말씀
[누가복음 9:16]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며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하늘나라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어요.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어요.

“이곳은 외딴곳이고 이미 어두워졌으니 사람들을 마심으로 보내서 각자 음식을 사먹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는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이곳은 먹을 것을 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아라.”

제자들은 한 소년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소년에게 반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씩 나누어 앉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남자들만 5천명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높이 들고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자 놀라움 말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보리떡과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마침내 5천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바구니에 모두 담아두어라.”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믿고 존경하여 따르게 되었어요.



활동 1.

아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고 계셨던 곳 건너편 호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 한 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요?

3) 요한복은 6장 13절을 읽고 대답하세요. 오천명이 먹고 남은 빵 조각을 몇 개의 바구니에 담았나요?

● 다음 성경구절을 읽고, 외우세요 (누가복음 9:16)

예수께서 딱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